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한반도 안에서 단일혈통과 동일한 언어·문화를 가진 한민족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산업의 가속화와 인구부족 문제로 한국 사회의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인구 유입이 필요해졌으며, 다문화 사회의 형성은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인 매년 증가해 2019년 252만 5,000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19년 4.87%에서 2021년 3.79%로 감소했지만 2022년 다시 4.37%로 증가했습니다. 국제화·세계화·개방화의 필요에 따라 앞으로 다문화 사회의 확대가 예상되며, 결국 올바른 다문화 사회 형성에 영향력이 있는 전문직업인을 비롯해 모든 구성원에게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다문화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문화 국가의 선례인 독일의 경우, 1980년대 독일에서 태어난 외국인 2~3세로 인해 전형적인 다문화 국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외국인은 전체 인구의 약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유럽국가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까지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 정책에서 배타적이고 혈통주의를 지향하면서 외국인 이민자가 독일 사회 속으로 편입하는 데에만 치중해 나타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고민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례를 통해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다문화 사회를 대비하고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주 배경을 가진 인구가 전체 인구의 5%에 달하면 이주사회에 진입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모두는 다문화 사회를 유연하게 통합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향후 2050년에 이주 배경을 가진 인구가 전체 인구의 10%가 될 것이라는 전망 앞에서 우리 사회는 더욱 다양한 문화와 함께 발전해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전문직업인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책은 다문화가 증가하는 현실에 발맞추어 <문화다양성의 이해와 실천>에 대한 교육의 현실과 중요성을 공감하는 저자들이 정성과 열정을 다해 집필했습니다.

이책의 주요 강점

- <문화다양성의 이해와 실천>은 인문학을 비롯해 자연과학, 보건 등 다학제적인 전문지식과 소통이 필요해 집필진은 이에 전문성을 갖춘 실무경력이 풍부한 교수진으로 구성했습니다. 이에 다문화 사회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과 실제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통합된 내용으로 저술하고자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사회통합과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서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특히 간호대학 교수진이 인문학이 강조된 다문화의 이해를 돕고자 다문화에서 전문성을 겸비한 인문 분야 집필진과 융합함에 따라 특히 간호학생의 다문화 학습에 있어 인문학 소양을 함양하는 데 주력해 집필했습니다.

• 간호대학 재직 교수들은 인문학이 강조된 다문화 교재 개발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대학생이 한국 다문화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전문직으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통합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준비했습니다. 본 교재는 I. 다문화의 이해 / II. 다문화사회의 형성 / III. 다문화사회의 실제 / IV. 다문화사회의 통합과 발전의 4개 부로 구성되었으며, 11개 장은 집필진의 전문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기술했습니다.

- 1장 다양성과 문화(창신대학교 간호학과, 이도영 교수)
 - 2장 이주와 다문화(창신대학교 간호학과, 이도영 교수)
 - 3장 다문화사회의 이론(창신대학교 간호학과, 윤채민 교수)
 - 4장 다문화사회의 구성(전남대학교 간호학과, 유수영 교수)
 - 5장 국제이주와 노동(창원대학교 미래융합연구소, 이진우 연구원)
 - 6장 다문화사회와 문화적응(글로벌사회연구소, 정은정 대표)
 - 7장 다문화 관련 법과 제도(창원대학교 미래융합연구소, 이진우 연구원)
 - 8장 외국의 다문화 정책(글로벌사회연구소, 정은정 대표)
 - 9장 이주민 인권과 사회통합(창원대학교 미래융합연구소, 이진우 연구원)
 - 10장 다문화교육과 상담(건양대학교 간호학과, 노기옥 교수)
 - 11장 미래사회와 다문화(글로벌사회연구소, 정은정 대표)
- ※ 이진우 - 국제학(정치·경제 전공) 박사
 ※ 정은정 - 국제학(글로벌 다문화 전공) 박사
 ※ 그 외 간호학 전공 박사 집필진으로 구성

- 각 장은 시작 전 ‘학습성과’를 제시해 성취목표를 제시했습니다.
- 각 장의 이론 학습을 통해 융합적인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읽을거리’와 토론을 촉진하는 ‘생각해보기’가 수록되어 성숙한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하기 위한 이해와 실천을 위한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감사의 글

이 책이 출판되기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주신 집필진 여러분과, 본 교재의 필요성을 느끼고 마무리까지 격려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교재의 출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사이플러스 대표님과 끝까지 집필과 수정을 반복해 밤낮으로 수고해 주신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본 교재는 출간과 더불어 사회적 흐름에 따라 계속 보완하고 발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며, 여러 독자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2023년 11월 24일
 지은이 적음

제 I 부

다문화의 이해

제1장	다양성과 문화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이도영 교수)	
1	문화의 개념	12
2	문화다양성과 문화다원주의	21
제2장	이주와 다문화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이도영 교수)	
1	다문화 이주 현상의 개념	32
2	다문화공간의 형성	39
제3장	다문화사회의 이론 (창신대학교 간호학과 윤채민 교수)	
1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주의	56
2	사회통합정책 모델	64

제 II 부

다문화사회의 형성

제4장	다문화사회의 구성 (전남대학교 간호학과 유수영 교수)	
1	다문화사회의 구성원	80
2	다문화사회 구성원의 적응	99
제5장	국제이주와 노동 (창원대학교 미래융합연구소 연구원 이진우)	
1	국제이주의 개념과 이주의 유형	118
2	국제이주 관련 이론과 시대별 국제이주의 원인과 특징	121
3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 관리정책과 지향점	134

제 III 부

다문화사회의 실제

제6장	다문화사회와 문화적응 (글로벌사회연구소 정은정 대표)	
1	문화적응의 개념과 유형	152
2	문화적응의 영향요인	157
3	이중문화와 문화적 역량	161
제7장	다문화 관련 법과 제도 (창원대학교 미래융합연구소 이진우 연구원)	
1	한국의 다문화정책의 발전과정	176
2	한국의 다문화 법제 현황	179
3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201

제8장	외국의 다문화 정책 (글로벌사회연구소 정은정 대표)	
1	북미의 다문화정책: 미국, 캐나다	212
2	유럽의 다문화정책: 영국, 독일, 프랑스	218
3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의 다문화정책: 중국, 일본, 호주	225
4	한국의 다문화정책과의 시사점	235

제 IV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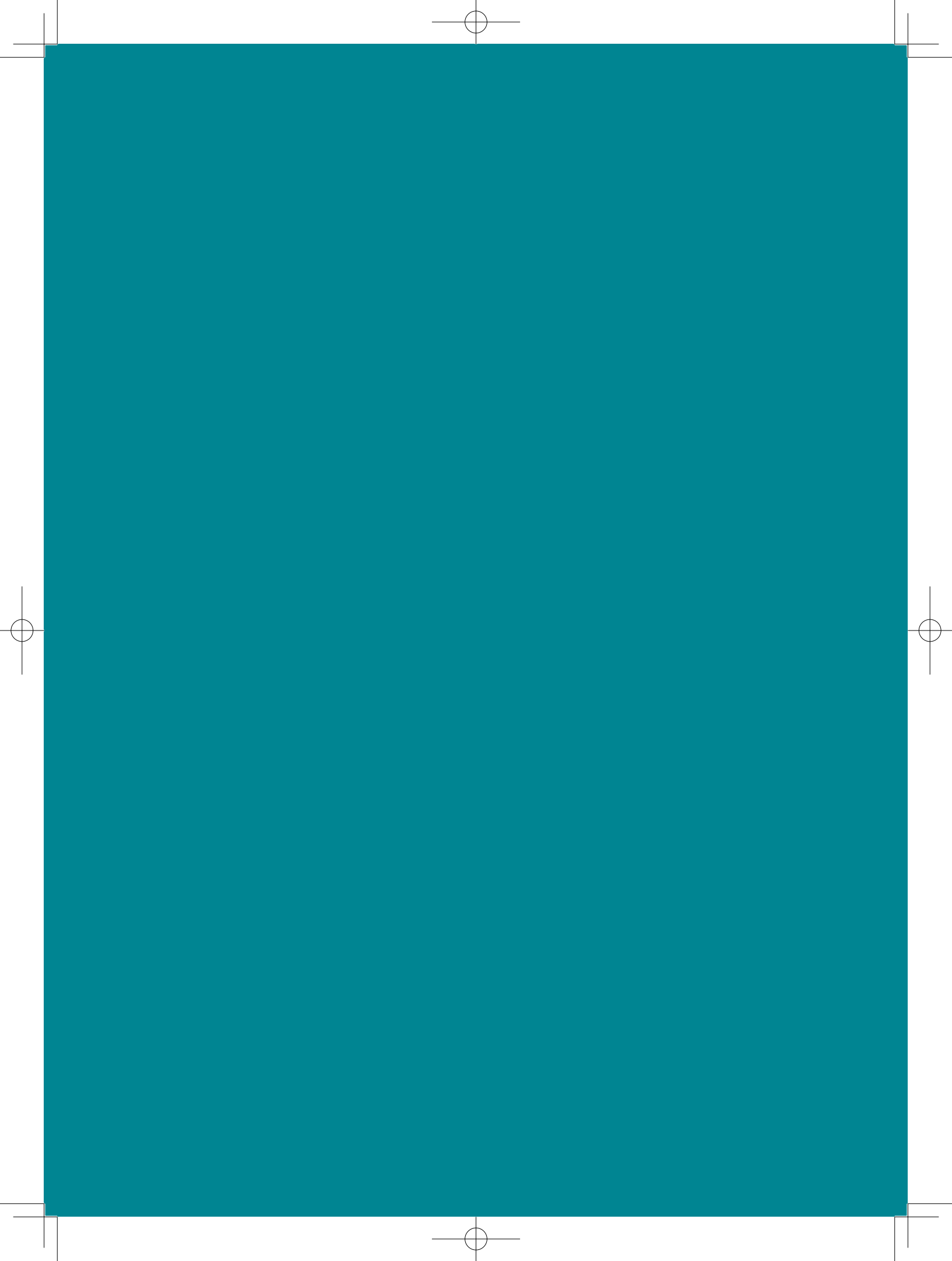
다문화사회의 통합과 발전

제9장	이주민 인권과 사회통합 (창원대학교 미래융합연구소 이진우 연구원)	
1	글로벌 리더 국가, 한국의 현실은?!	242
2	인권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이주민 인권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	245
3	국제인권(외국인·이주민)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 - 국제규범의 등장	253
4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 차별과 혐오를 넘어,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	266

제10장	다문화교육과 상담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노기옥 교수)	
1	다문화교육의 개념	280
2	다문화교육의 필요성	286
3	다문화교육의 현황과 방향	291
4	다문화상담의 이론과 실제	300

제11장	미래사회와 다문화 (글로벌사회연구소 정은정 대표)	
1	4차 산업혁명과 다문화 유능성	310
2	다문화사회와 거버넌스	320
3	글로벌 시대 다문화사회의 방향	326

부록 I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	333
부록 II	세계인권선언	336
부록 III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341
부록 IV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349
부록 V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359
부록 VI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372
부록 VII	출발선 평등을 위한 2022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387
	찾아보기	3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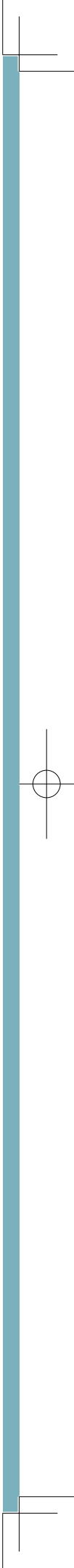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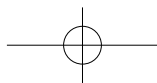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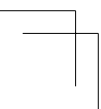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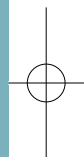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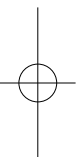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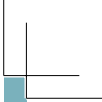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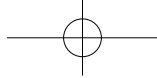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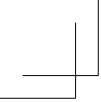




제 I 부

다문화의 이해

- 제1장 다양성과 문화
- 제2장 이주와 다문화
- 제3장 다문화사회의 이론



제 1 장

다양성과 문화

학습 성과

1. 문화의 개념을 이해하고 정의할 수 있다.
2. 문화의 기능과 속성을 이해하고 그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3. 문화의 유형을 이해하고, 소중한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4.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에 관해 생각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5. 문화다양성과 문화다원주의를 이해할 수 있다.
6. 세계화 속에서 문화의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다.

1

문화의 개념

1 문화의 의미와 정의

문화(culture)는 사전적으로 ‘배양하다’라는 의미가 있으며, ‘경작하는 것(cultivating)’, ‘농업(agriculture)’이라는 의미의 라틴어 ‘cultura’를 어원으로 한다. 그 후 15세기 중반 영어에서 ‘땅을 가는 것, 곡식을 얻기 위해 땅을 가꾸는 행위(the tilling of land, act of preparing the earth for crops)’라는 뜻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수확을 위해 일군 땅에 씨를 뿌리고 가꾸는 데 정성과 시간이 필요한 것 같이 문화 역시 사람들이 살아가며 주어진 자연환경을 변화시키면서 만들어낸 생활양식과 그에 따른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는 언어, 종교, 법이나 도덕, 사상, 의상, 의례, 종교 등의 규범, 가치관과 같은 것들을 포괄하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가치관, 윤리, 사회구조와 제도, 행동양식 등에 따라 다양한 관점을 가진 이론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정의가 존재하며, 특히 문화에 관해서는 철학, 역사학, 사회학, 인류학에서 폭넓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

- ‘인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영국의 사회인류학자인 에드워드 버네트 타일러(Edward Burnett Tylor, 1832~1917)는 「원시문화(Primitive Culture, 1871)」에서 문화를 “제 민족의 양식을 고려할 때 한 사회의 구성원이 갖는 법, 도덕, 신념, 예술, 기타 여러 행동양식을 총괄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했다.
- 린튼(Linton, 1936)은 문화를 ‘사회적 유산’이라고 정의했다.
- 미국의 문화학자 리처드 니버(Helmut Richard Niebuhr, 1894~1962)는 “문화란 인간 활동의 총체적 과정과 그 활동으로 인한 총체적 결과이며, 문화라는 것은 인간이 자연적인 것 위에 첨가한 인공적이며 2차적인 환경으로, 이것은 언어, 관습, 사상, 믿음, 습관, 사회조직, 전수된 가공품, 기술적 제조법 그리고 가치 등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정의했다.
- 미국의 인류학자 클리포드 기어츠(Clifford Geertz, 1926~2006)는 저서인 「문화의 해석(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1973)」에서 “삶에 대해 사람들이 지식과 태도를 소통하고 지속시키며 발전시키는 상징적 형식으로 표현되어 전달된 개념의 체계”라고 정의했다.

- 그린(Green, 1995)은 “인종적·민족적·종교적·사회적 집단에 속한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포함하여, 사회적 경계를 넘나드는 세계관, 행동, 관습, 신념, 성향, 가치, 제도 등을 내포하는 인간행동의 통합된 양식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했다.
- 수, 아이비, 피더슨(Sue, Ivey, & Pedersen, 1996)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가운데 내·외부적으로 학습한 방식으로 사회적 행동을 하는 그 사회의 공유된 사고방식, 행동방식”이라고 정의했다.
- 유네스코(2002)에서는 “문화는 한 사회 또는 사회적 집단에서 나타나는 예술, 문학, 생활양식, 더부살이, 가치관, 전통, 신념 등의 독특한 정신적·물질적·지적 특징”이라고 정의했다.

위와 같이 다양하게 정의된 문화는 일반적으로 사회구성원들이 오랜 세월을 걸쳐 형성한 관습이며, 후천적인 학습으로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는 본연의 자연을 인간에 의해서 변화시켜 인간의 삶의 방식으로 만들어가는 것으로, 한 집단이 공유하면서 다음 세대로 전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문화의 기능

문화는 ‘사회구성원이나 특정 집단의 독특한 생활양식의 총체’로, 공동체의 의미와 전통을 반영한다. 또한 사람이 사람다운 생활을 하며 한 공동체가 표현하고 표상하는 전반적인 삶의 양식으로, 구성원의 지각과 행동에 폭넓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사회구성원 간에 공유되고 사회 속에서 성장하면서 학습을 통해 습득되며,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승되어 누적되며 계속해서 변화한다.

(1) 사회화 기능

문화는 개인의 성격을 형성하고 변화시키며, 개인에게 다양한 생활양식을 내면화시켜 개인이 사회에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사회화 기능을 한다. 문화는 개인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를 제시하는 지침이 된다.

(2) 욕구충족 기능

문화는 개인의 생리적 욕구와 심리적 욕구 등을 충족시켜준다. 다양한 생활양식을 통해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개인은 문화를 통해 사회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으므로 욕구충족의 기능을 한다.

(3) 사회통제 기능

문화는 개인의 행동에 대한 규제와 사회의 안정과 질서에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제거하거나 조절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즉, 문화는 도덕, 신앙, 규범이나 관습 등으로 개인행동을 규제하거나 사회악을 제거함으로써 사회통제의 기능을 수행한다.

(4) 사회존속 기능

문화는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존속을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사회가 계속 존재하는 것은 문화를 학습하고 전승하여 후세에게 필요한 생활양식을 전해주기 때문이다.

3 문화의 속성

문화는 사회 속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문화가 아닌 것들과 구별되는 속성이 있다.

(1) 공유성

문화는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생활양식이다. 한 사회의 구성원들은 언어나 행동양식 및 사고방식을 공유한다. 인간행동의 많은 부분은 그가 소속한 집단의 행동양식을 따르는 것이며, 이러한 행동양식은 사회구성원끼리 공유된다. 예를 들면 언어와 같이 공유되는 문화를 통해 상대방의 행동과 기대를 예측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문화는 사회구성원이 원활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2) 학습성

문화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 사회화 과정에 의한 학습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언어, 규범, 관습 등은 학습과정을 통해 새로운 세대에 전승된다.

인간은 특정 문화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정에서 학습하고 사회생활을 통해 습득한다. 한 집단의 인간이 공유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문화가 아니며, 문화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학습되어야만 한다. 즉, 문화는 생득적인 것이 아니라 비유전적으로 습득한 결과이다.

(3) 축적성

문화는 다음 세대로 전승되면서 기존 문화에 새로운 문화 내용이 축적되고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진다. 문화는 언어를 통해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져왔으며, 문자를 통해 문서의 형태로 저장되고 축적된다. 다시 말해 과거의 문화에 새로운 문화가 더해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각 세대에서 이루어진 문화가 추가되어 계속 쌓여간다.

(4) 가변성

문화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형태, 내용, 의미가 변화하기도 하며, 새로운 특성이 생성되거나 기존 특성이 소멸되기도 한다. 이렇듯 한 사회의 문화적 특성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변화한다.

우리는 직면한 문제를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전달되고 학습되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사회 전체로 확산되어 문화의 한 부분이 형성된다.

(5) 총체성

사회집단이 가진 지식, 예술, 도덕, 법, 종교 등과 같이 수많은 부분이 각기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상호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문화의 각 영역이 상호 유기적 관련을 맺고 전체성을 이룬다. 문화 속에서 어떤 한 부분의 변화는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쳐서 또 다른 변화를 일으키며, 거의 모든 영역에도 부수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한 사회의 문화를 구성하는 각각의 부분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고, 한 영역에서의 변화는 그 영역을 포함하여 다른 영역에도 변화를 일으킨다. 따라서 한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려면 총체적인 관점에서 각 부분의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

4 문화 보존을 위한 노력

문화는 인간 삶의 총체로서, 유형적인 것과 무형적인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유형적인 것은 과거와 현재의 문화유적을 포함한 예술문화 혹은 일상적인 삶의 도구를 의미하며, 무형적인 것은 종교 사상, 세계관, 의식, 관습, 가치관 등을 의미한다(이종복 등, 2012).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그림 1-1 UNESCO 유산 로고

출처 <https://heritage.unesco.or.kr/>

Organization, 이하 UNESCO)는 국제협력을 촉진하여 세계평화와 인류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유엔의 전문기관이다. UNESCO가 세워진 계기는 제1·2차 세계대전이며, UNESCO 현장은 ‘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비롯되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속이다(Since wars begin in the minds of men, it is in the minds of men that the defences of peace must be constructed).’라고 공포했다. 세계 각국은 세계대전 이후 경제력이나 군사력 등 물리적인 힘만으로는 평화를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에 각국의 정부 대표와 주요 인사들이 1942년부터 4년간 영국 런던에 모여 여러 차례 논의한 끝에 교육, 과학뿐만 아니라 문화 분야까지 국제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국제기구를 창설하기로 뜻을 모아 설립했다.

특히 UNESCO에서 정의하는 유산이란 “우리가 선조로부터 물려받아 오늘날 그 속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산”이다. 한 나라에서 신청할 수 있는 유산은 1년에 총 45건으로 제한되며, UNESCO 유산으로 지정되면 ‘탁월한 보편적 가치’로 인정받는다. UNESCO 유산으로 선정된 유산은 세계 각국의 사람들과 자국민에게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으며, UNESCO의 지원과 각국의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 UNESCO는 소멸 위기에 있는 유산을 찾아 유산으로 지정하고 보호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유산들은 세계유산협약이 규정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으로서,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으로 분류된다.

UNESCO는 이러한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을 발굴 및 보호, 보존하고자 1972년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약칭 ‘세계유산협약’)을 채택했다.